

고흥 농수산물 프랑스 파리 '300만 불 수출협약'

고흥 유자차·김 등 K푸드 열풍... 올림픽 앞두고 시장 공략

고흥군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은 최근 ㈜에이스푸드(ACE FOOD SAS 대표 이상호)와 3년간 김, 유자차 등 300만 달러 상당을 프랑스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스푸드는 프랑스 파리 시내 중심가에 7개의 로컬 직영 매장을 보유한 유통기업으로 주로 한국 식재료를 전문으로 취급해 프랑스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작년 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영민 군수는 "에이스푸드와 고



고흥군은 K푸드 열풍과 2024년 파리 올림픽 시장 특수에 맞춰 현지인 입맛에 맞는 유자 관련 신상품 개발 및 출

이 일품인 고흥 유자 원액을 활용한 유자 음료가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시장에 큰 이슈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스푸드 이상호 대표는 "우리 회사는 프랑스의 한식당 80%에 한국 농수산식품을 전문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직영 매장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다"면서 "고흥 유자차, 유자 음료, 고흥 김 등 농수산 가공식품을 파리 시장에 유통해 고흥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은 "고품질 고흥 유자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면서 프랑스 현지인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과 고흥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신용원 기자

구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시작

최대 300만 원 지원

구례군이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 이륜차 총 38대(일반 26대, 우선지원 4대, 배달용 8대)를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1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법인과 기관은 누구나 보조

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형·규모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라남도 도내 생산 제품(에이치비) 구매 시에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구례=오광범 기자

곡성 '행복 담벼락 캠페인' 참여

오는 30일 행복정책 페스티벌 개최

곡성군이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기념하여 '행복 담벼락'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오는 30일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홍보하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복의 시작'에 대한 생각을 적어 온라인 담벼락과 페스티벌 현장에서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군은 '진정한 행복은 군민이 직접 생각하고 그리는 정책을 모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아 '행복은 지역에서부터, 행복은 군민이 그리는 행복 정책에서부터'라는 행복 나눔 메시지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실제로 군은 민선 8기 행복정책 슬로건을 '군민이 그리는 행복 곡성'으로 수립, 군민이 주체가 되어 곡성만의 행복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군민 행복원탁 토론회와 행복 인터뷰를 시작



으로 맞춤형 행복 지표를 완성했으며 올해 초에는 행복도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군민 체감형 행복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행복 정책 집시서인 행복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행복 담벼락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하면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는 기회였다"며 "곡성군민이 진정한 행복을 그리는 행복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홍정백 기자

'보성다향대축제' 문체부 지역축제 수용태세 개선사업 최종 선정

축제장 내서 즐길 수 있는 특화 먹거리 개발 기대

보성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지역 축제 수용태세 개선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축제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65개소 중 전남 조직 역량, 지원 필요성, 실행 가능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결과 보성다향대축제, 부산국제특산물티빌, 여주오곡나루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총 5곳을 선

정했다. 보성군은 올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비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보성다향대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성에(愛) 물들다(茶), 애프터 티(Tea) 파티, 찾았 따기 등의 이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축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보성만의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보성차(茶)를 기반으로 한 먹거리 상품 개발, 먹거리 유통채널 구축, 전문가 컨설팅, 반짝매장(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국내외 대규모 박람회,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콘

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축제장 내에서 먹거리 및 요리법을 발굴할 수 있는 행사를 규모화, 체계화한다. 전국의 실력자들이 참가하는 경연 대회 '보성 티 마스터 컵디저트 분야', '보성 홀스타랑 마스터셰프(요리 분야)' 등을 추진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대상 작품을 상품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생산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안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에서 상시 판매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장국모 기자

순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순천시는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순천시가 본점 또는 지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방문이나 우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별 0.1% 인하), 분할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분할납부 제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22일까지 추경안 등 안건 처리

광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광양시 저장각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대원 의원), 광양시 공공자급 운동 및 권리조례안(김정민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일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시장으로부터 본예산보다 886억 원이 증액된 1조 1,86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 후 제326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회기에 예정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만국가정원 '스페이스 브릿지' 새 랜드마크 급부상

기존 꿈의다리 작품 디지털로 변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호평



순천시 '스페이스 브릿지'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7일만에 관람객 21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꿈의다리를 리뉴얼한 '스페이스 브릿지'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기존에 설치됐던 강익중 작가의 '꿈의다리'는 컨테이너박스를 재활용한 작품으로, 10년의 세월이 흐르

면서 누수, 탈각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또한 지속적인 야외 노출로 색바랜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작품성 훼손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적 형태로 존재하는 14만여 점의 작품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스페이스 브릿지' 내부에 기존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당시 작품에 참여했던 관람객들에게는 본인의 작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10년 전 14만 명 아이들의 꿈 작품을 찾아보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스페이스 브릿지'가 호평을 받는 이유는 '꿈의다리'의 작품성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작품 훼손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브릿지'라는 명칭처럼 아이들의 꿈이 우주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노란구 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날로그적 요소는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더했다"며, "지난해 순천을 찾아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오시더라도 확 달라진 국가정원을 만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용강지구~동천~광양읍 도심 연결 공원녹지 구축 박차

도로개선 공사·경관광장 조성·보도교 설치 등

광양시는 광양읍 동천을 중심으로 도로 개선과 녹지공간, 경관광장, 보도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장애여건 분석을 통한 중장기 최적의 도심 연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광양시는 공원녹지 사업의 연계성과 이동성 제고, 접근성 개선 등 전반적인 공원 녹지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원녹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공원(144개) ▲광장(11개) ▲유원지(2개) 등 총 157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광양읍 용강지구~동천~원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천 도로 개선 공사를 포함해 동천 경관광장 조성, 보도교 설치 등 공원녹지 공간 확충과 기반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는 최근 동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용강, 목성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건설로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기존 동천 산책로와 연계한 보행 연결로인 '보도교 개설(L=118m·B=3m)' 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조순의 기자

광양시, 장애인 쉼터 '뜨락' 개소



광양시는 지체 장애인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장애인 쉼터 '뜨락'을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 11일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임형석 도의원, 박경미 도의원, 광양시의원들을 비롯한 광양시 장애인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 8기 광양시 장애인 쉼터 '뜨락'은 광양읍 소재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부지 내에 시비 2억6천만원을 투입해 62.55㎡ 규모로 교육, 휴게, 상담실 등의 공간과 편의시설로 조성됐다.

'뜨락'은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에서 운영하며, 장애 특성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컸던 장애인들이 교육과 정보공유,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공간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과 함께 ▲꽃꽂이 수업 ▲장애인식개선교육 ▲둘레길 탐방 ▲자연영화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석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장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활기찬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고흥 "미션 수행하고 NASA 가자"

'어린이 우주기자단' 모집

고흥군은 4월부터 '2024 어린이 우주기자단'을 상시 모집한다.

'2024 어린이 우주기자단'은 고흥군과 국내 유일의 과학 미디어인 ㈜동아사이언스(대표 장경애)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우주과학 인재 양성 프로젝트다.

어린이 우주기자단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동아사이언스 판권플래너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어린이는 기자단원으로 등록돼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보령 등

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현장 교육과 온오프라인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우주기자단은 첫 오프라인 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1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탐방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 및 기사를 작성한다.

4개월간 진행되는 다양한 미션 수행 결과 30명이 우수 홍보대사로 선발되고, 오는 9월 중 '우주 엠베서드 페스티벌'에서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3인이 '어린이 우주인'으로 선발되면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우주센터를 탐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고흥=신용원 기자